

NEW & SPOT

Upon entering the <Joke Hotel>, guests are immersed into a universal world of childhood memories, feasts, and games. The design evokes vivid memories of the bright summer sky and traveling, as if a caravan goes from city to city and transports the young and the old. People perceive a joyful light, graphic and happy atmosphere. The once old <Joke Hotel>, now completely renovated, was inspired by childhood and the impressions that it leaves, whatever the age or the nationality may be. A stay at <Joke Hotel> promises good humor, sweetness, and timeless but contemporary design. As bright as a summer day, the entrance, the lobby, and dining or breakfast area are united in one large space. The reception desk appears to be a large wood crate, with balloons floating above. A coil of suspended light bulbs and lamps travel across the ceiling to spell out the word 'joke' above the desk. A modular furniture display, inspired by festival booths, is used for a breakfast buffet and an open bar. The open bar allows guests to quench their thirst with soft drinks and nibble small snacks. The immensely bright room is a cozy bar and a large library filled with miscellaneous memorabilia, books, and games. The top of the tables are like a target, as if from a dartboard, while the legs resemble pieces of the game. The cheerful style continues into the guest rooms. Interactive and playful elements make the stay a joyous trip, as everyone desires to be entertained.

조크 호텔에 들어서면 추억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축제가 열리는 게임 속 나라로 빠져든다. 가로의 디자인은 맑은 여름 하늘 아래 낭만노소 모두를 태운 캠핑카가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아기자기한 조명과 그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조크 호텔>은 누구에게나 있는 어린 시절과 그때의 추억에서 영감을 얻어 지금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바꿈했다. <조크 호텔>에 머물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유형을 다르지 않되 세련된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여름날처럼 밝게 디자인된 입구와 로비, 그리고 카페 하나로 연결되면서 공간이 넓어졌다. 커다란 나무 상자로 제작된 리셉션 데스크 위에는 종선이 떠 있고, 천장에 매달린 조명은 천선을 따라 '조크'라는 글자를 그린다. 축제용 푸스에서 차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모듈형 가구는 조식 테이블이나 바 테이블로 사용된다. 이용객은 바 테이블에서 음료를 마시며 목을 죽이거나 과자를 즐길 수 있다. 굉장히 밝게 설계된 이 공간은 가족한 식당이 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양한 수집품과 책, 게임이 가득한 대형 도서관이 되기도 한다. 탁자 상판은 마치 디트판의 과녁 같고, 탁자 다리는 게임 도구처럼 꾸며졌다. 지렇게 흥을 돋우는 분위기는 투숙실까지 이어진다. 투숙객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디자인과 재미있는 요소가 있기에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도 모두가 원하는 신나는 여행이 펼쳐진다. www.maidenbergarchitecture.com

